

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한국 6월 수출

예상 상회; 수출 및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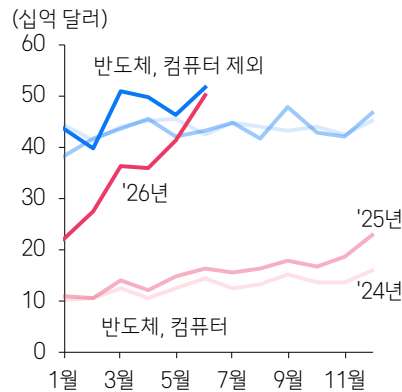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, 선박, 무선 통신기기, 화장품 등의 나머지 품목의 수출도 양호한 증가세 지속
- '26년 수출 전망 기존 45%에서 60%로 상향하며, GDP 전망도 '26년 3.2%에서 3.4%로, '27년 2.6%에서 2.8%로 조정. 명목 GDP는 각각 18.1%와 9.3% 예상

'26년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70.9%(1,022.5억 달러)를 기록하며 당사(63.0%) 및 금융시장(60.9%, Bloomberg 기준, 이하 전년 대비)을 상회했다. 일평균 수출은 조업 일수가 1.5일 증가하며 59.9%를 기록했다. 한국 수출이 당사 예상을 상회한 것은 글로벌 AI 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6월 반도체(199.5%)와 SSD(354.6%) 수출이 각각 448.2.4억 달러와 51.5억 달러를 기록하며,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(각각 20.6%와 30.5%). 아울러, 데이터센터 건설 증가로 비철금속(45.8%)과 2차 전지(17.4%)의 수출도 높은 증가율을 지속했다.

나머지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(5.8%) 수출이 부품 공급의 안정과 수요 증가로 2개월 만에 (+)로 전환되었고, 무선통신기기(51.9%)도 신제품 출시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. 아울러, 석유(49.8%)와 화학(18.8%)은 수출 제한 조치, 내수 공급 우선 등으로 수출 물량은 감소했지만 단가가 상승하며 증가세를 지속했다. 화장품(45.8%), 바이오 헬스(14.1%), 선박(12.9%) 등도 양호했다. 반면, 가전(0.5%)과 생활용품(-4.3%)은 부진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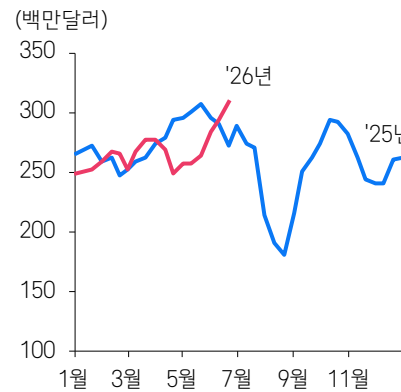
한편, 당사는 '26년 연간 수출 전망을 기존의 45%에서 60%로 상향 조정한다('27년 전망은 15%로 유지). 이는 반도체 수출 증가 폭이 예상을 상회하여 '26년 반도체 수출이 190%에 이르고, 국제유가 안정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. 이러한 수출 전망의 상향을 감안하여 '26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.2%에서 3.4%로, '27년도 2.6%에서 2.8%로 상향 조정한다(명목 성장률 전망은 18.1%와 9.3%로 각각 0.4%p씩 상향).

반도체와 컴퓨터 수출 크게 증가



자료: 산업통상부, 삼성증권

자동차 일평균 수출 전년 대비 (+)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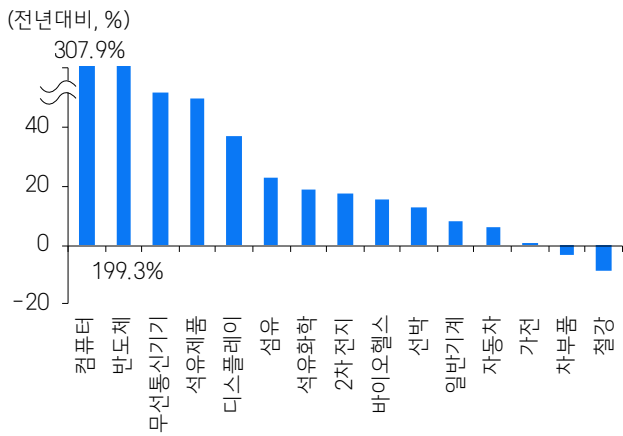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관세청, 삼성증권

Compliance No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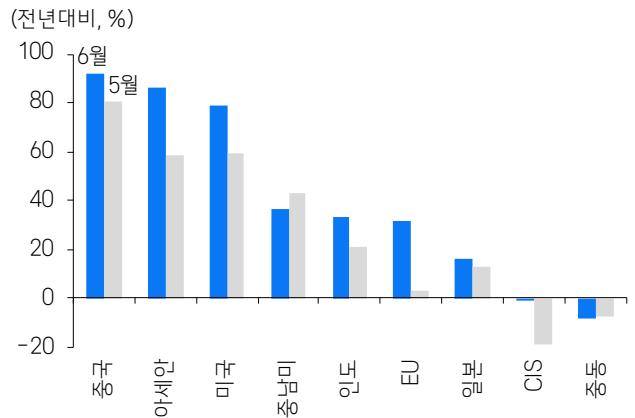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6월 품목별 수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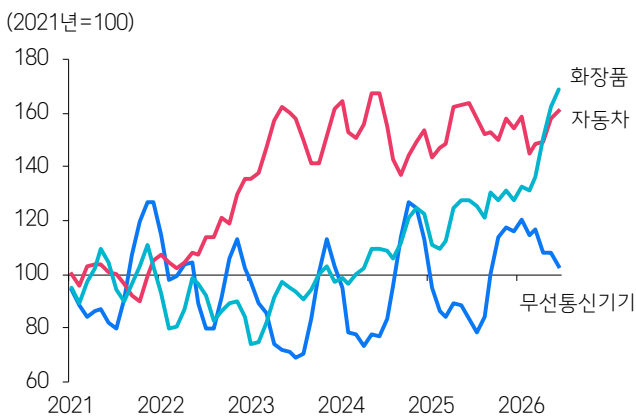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부, 삼성증권

6월 지역별 수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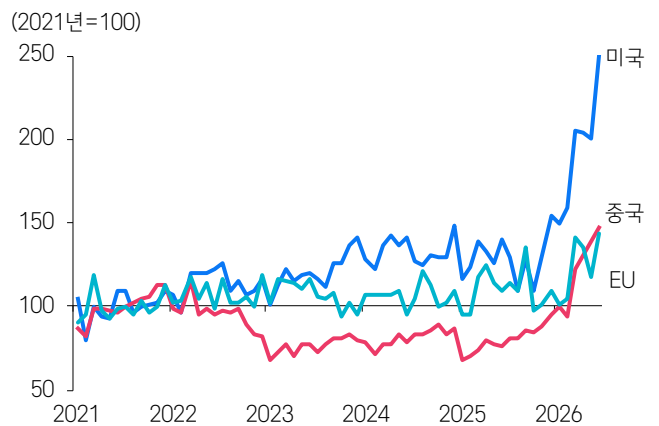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부, 삼성증권

화장품 수출 증가세 이어져



자료: 산업통상부, 삼성증권

주요 지역 중 미국향 수출 증가가 뚜렷



자료: 산업통상부, 삼성증권

삼성증권

삼성증권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(삼성전자빌딩)
Tel: 02 2020 8000 / www.samsungpop.com

삼성증권 Family Center: 1588 2323

고객 불편사항 접수: 080 911 0900



Member of
**Dow Jones
Sustainability Indices**
Powered by the S&P Global CSA